



경기도, 2024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올해 5월부터 진행키로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디엠지 생태·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종합축제 개최



경기도가 2024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대표적인 생태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임미정 한세대학교 교수가 총감독으로 위촉돼 행사를 이끌게 된다.

7개월여 동안 경기북부와 디엠지(DMZ) 일원에서 열리는 올해 페스티벌은 국제음악제, 평화음악회, 전시회 같은 예술행사와 에코피스포럼, 특별강연, 정책 공모전 같은 학술 행사로 구성된다. 또, 평화 걷기와 마라톤 등의 스포츠 행사까지 포함한 종합축제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 캠프그리브스 2차 개방과 연계한 기회소득예술인이 참여하는 전시회, 경기도체육대회, 디엠지(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도 함께



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개념을 적용해 폐현수막 리사이클링을 통한 장바구니 제작 등 친환경 행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거리공연(버스킹),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디엠지 평화열차 등 공연, 전시 행사 등과 연계한 평화관광 콘텐츠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

할 예정이다.

금년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세부적인 행사 일정과 계획은 상반기 중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디엠지(DMZ)는 생태·평화·역사적 가치가 부각되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면서 “디엠지(DMZ) 일원의 관광자원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과 연

계해 전세계가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에는 7개월 동안 총 164만여 명이 참가했다.

김범상/기자

서울시, '오세훈표 서울둘레길' 코스·시설 이어 트레킹 프로그램 손질 마치고 시민 만난다

서울둘레길 펀트레킹야간 트레킹 등 연중 다채...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으로 신청

지난 1월, 코스와 시설을 손질하고 올봄부터 운영을 준비해 온 '서울둘레길'이 프로그램까지 알차게 채워 시민에게 돌아온다. 특히 산림레포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새롭게 운영을 맡게 돼 둘레길156.5km를 120%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월 말부터 전면 개편된 '서울둘레길 2.0'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5월부터는 둘레길에 관심 있는 시민, 완주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아카데미'가 열린다. 이들은 앞으로 둘레길을 수시로 탐방하며 정화 및 모니터링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서울둘레길 2.0'의 한 해를 되돌아 보고 다양한 코스를 걷고 즐기는 '서울둘레길 가을 속으로'가 마련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서울둘레길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예약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을 통해 할 수 있다.(프로그램별 예약 시기 상이)

서울시는 4월 말부터 전면 개편된 '서울둘레길 2.0'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도 연중 진행된다. 5월부터는 둘레길에 관심 있는 시민, 완주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아카데미'가 열린다. 이들은 앞으로 둘레길을 수시로 탐방하며 정화 및 모니터링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둘레길을 운영할 기관으로 '서울특별시산악연맹'을 선정했다. 서울산악연맹은 앞으로 2년 9개월간 송길등산지도사, 숲 해설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둘레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965년 설립돼 60여 년의 오랜 산림레포츠 노하우를 가진 '서울시산악연맹'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둘레길 운영 업무를 맡게 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코스 개편과 준비를 마친 '서울둘레길 2.0' 본격 운영을 앞두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운영기관까지 선정돼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둘레길이 시민 건강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세계인이 걷고 싶은 트레킹 명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둘레길에 가을이 무르익었을 무렵인 11월에는 1,000명이 새롭게 운영된

최광수/기자

저출생 전쟁 나선 경북도, 미혼남녀 '크루즈' 여행도 보낸다!

'만나야 연애하고 연애해야 결혼하고 결혼해야 출산' 만남이 저출생 반등의 마중물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미혼남녀 만남 기회를 대폭 늘리는 '미혼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 출생아의 97% 정도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는 만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만남과 결혼을 돕는 일이라는 것이다.

경상북도의 혼인 건수는 2013년 1

만 5,421건에서 2023년 8,128건으로 10년 만에 4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 또한 2만 2206명에서 1만 200명으로 54.1% 감소해 결혼이 출산과 직결되는 선행지표를 알 수 있다.

경북은 결혼 적령기 청년구로 밀집도가 낮고 민간 결혼정보회사도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서 남녀간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에 경북도가 직접 나서서 ▲(만남 기회 제공) '청춘동아리' 운영 ▲(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개장 ▲(여행으로 연결) '행복 만남' 및 '크루즈' 여행 등을 통해 남녀 간 만남을 주선하고 장려한다.

'청춘동아리'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캠핑, 음식, 반려동물 등 취미 위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워크숍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을 열어준다. 올해는 5월, 8월, 10월 등 총 3기를 운영한다.

공식 만남 주선 프로그램으로 개장하는 '솔로 마을'은 단기 체류형 연애·취미 캠프로 패션, 화술, 심리 등 개인별 매칭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예능 프로그램 매칭 방식의 참가자 커플 매칭 이벤트도 진행한다. 7월 여름휴가 및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경북 솔로 마을이 오픈된다.

청춘동아리와 솔로 마을 등을 통해 성사된 커플과 예비 엄마·아빠, 신혼부부, 3자녀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는 출산 분위기 확산과 다자녀 부모에 대한 휴식 제공에 초점을 맞춰 여행을 보내준다.

달일 또는 1박 2일로 도내 주요 관광 명소를 다니는 '행복 만남 가족' 여행을 비롯해 연말에는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한 5박6일짜리 '크루즈' 해양관광도 제공한다.

경북도는 이 같은 사업들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공공기관, 교육청, 소방본부, 민간단체 등에 미혼남녀 현황과 선호하는 만남 프로그램 등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의 미혼율이 높아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의 경우 현원 5,503명 중 38.2%인 2,101명이 미혼 상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에서는 좋은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연애나 결혼 못 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겠다”며 “연애와 결혼, 주택 마련, 출산과 육아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연말에 내놓고 저출생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모든 구·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선정!

부산시는 교육부의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부산의 16개 모든 구·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다.

전국에서 모든 구·군이 선정된 시도는 부산이 유일하며,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936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시는 사업 참여 전수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했고, 16개 구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 그 결과, 부산시의 모든 구·군에서 사업 신청 및 선정됐다.

특히, 시는 전국 대비 6.7퍼센트(%)인 장애인 인구 비율에 비해 총지원 규모 9천 명의 10퍼센트(%)인 936명 지원 규모 확보를 목표로 선정했고, 신청 규모 모두 사업비로 반영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성과는 부산시 및 구·군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산의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5, 6월 중 보조금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규모는 구·군별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비율에 따라 상이하다.

선정된 이용권 신청자는 NH농협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전국 3,012개소, 59,797개 강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강좌와 무관한 교재나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등을 구입할 때는 쓸 수 없다.

또한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 등 다른 평생교육 이용권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16개 구·군에 감사드리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서 부산 전체를 평생학습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우리는 학습의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전남도 국제자동차경주장, 공공체육시설 역할 강화한다

전남도, 임대 없는 기간 생체 등 공익목적 행사 시 무료 개방

전남도는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인 국제자동차경주장을 4월부터 10월까지 임대료가 없는 기간에 지역민에게 무료 개방,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전남GT(Grand Touring) 등 모터스포츠 대회를 중심으로 신차 개발 및 타이어 테스트, 기업행사, 스포츠 주행 등 연간 250일 활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사이클)를 비롯해 마라톤, 두애슬론 등 생활체육행사에 대한 임대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5.6km의 폴코스(F1트랙)를 주말에 임대할 경우, 1일 기준 일반임대 2천만 원, 대회 임대 4천만 원 등으로 사용료가 고가여서 일반인 사용이 어려운 조건이다.

이에 전남도는 공공자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해 10월까지 대회 및 임대 없는 기간을 활용해 무료 개방키로 했다.

국제자동차경주장 누리집에서 신청 및 일정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생활체육, 문화·교육 등 공익목적 행사에 한해 서킷 사용료는 무료다.

다만 청소비, 행사 운영비 등 실비는 신청기관·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비용이 있는 일정을 활용한 개방인 만큼 임대료가 가능한 코스(트랙) 및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운영요원을 배치하고 보험 가입, 청소 및 시설 복구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영업행위 등 상업적 활동을 하면 즉시 행사를 취소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상용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모터스포츠로 차별화된 전남의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여가활동이 확대될수록 활용도가 늘고 있다”며 “도민이 함께하고 사랑받는 공공체육시설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부산의 만 19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늘봄학교 재능기부 나서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진 중인 '초등 1학년 학습형 늘봄프로그램 재능기부 챌린지'에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6일 해운대구 해원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신정철 교육위원장은 하운수 교육감에게 후속 주자로 지목받고 챌린지에 참여했다. 신 위원장은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훌라후프를 활용한 릴레이와 게임 등 다양한 신체 놀이를 즐기며 일일 교사로 나섰다.

또,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교실

운영 현황·인력·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챌린지에 참여해 학생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기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챙겨보겠다"고 말하며, 다음 주자로 박수자 부산교육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한편, 이번 챌린지는 지난 6일 하운수 교육감에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신정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후속 주자로 참여했다. 이번만 아니라 유튜브 김민구·박이안 씨와 프로스포츠 구단 치어리더팀 등 각계각층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윤근수/기자



용인특례시의회, 2024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실시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1일 모현중학교 학생자치회 2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를 방문해 청사를 견

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윤원균 의장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의정활

모현중학교 참여로 상반기 일정 시작

동에 대한 생생한 체험담을 전해들었다.

특히,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용인시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토론에 참여했으며, 전자투표로 표결해 안건을 처리했다.

의장 역할을 맡은 3학년 5반 국영호 학생은 "높은 단상에 올라가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해보니 많이 떨리고 책임감이 느껴졌다.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 계기가 됐으며, 직접 체험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원균 의장은 "학생들이 의회에 귀한 걸음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의

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라며, 의회에 바라는 부분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제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상반기는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구성 단체는 용인특례시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온 마음 다해 안점순 할머니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

30일, 고(故) 용담 안점순 할머니 6주기 추모제 참석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30일 수원시 연화장 추모의 집에서 열린 고(故) 용담 안점순 할머니 6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날 추모제는 ▲제사 ▲제배 및 헌화 ▲추모공연 ▲음복 ▲추모의집 참배 등으로 진행됐다.

안점순 할머니는 14살 때인 1941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 수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 등 평화운동가로 활동하다 2018년

별세했다.

김 의장은 추모사에서 "오늘은 안점순 할머니께서 우리 곁을 떠난 지 여섯 해가 되는 날"이라며 "온 마음을 다해 안점순 할머니를 기리고, 할머니의 삶과 헌신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나라 잃었던 민족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할머니의 길을 따라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상/기자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수상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정치, 지방자치, 국제, 경영, 사회, 의료,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국회의원, 교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기업대표 등에게 수여하며, 10개 부문 38명에게 시상했다.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강릉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어 현재까지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해 행동하는 선진 의회상 정립에 기여해 왔고 집행부와 도민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조례,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0여 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고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심오섭 의원은,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했고, 그것이 높게 평가받아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서울시 강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6명 위촉, 대표위원으로 노애자 의원 선임

4월 1일부터 3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4월 1일 오전 구의회 5층 의정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위촉식'을 진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을 비롯하여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의원과 ▲김유정 ▲노상만 ▲송재원 공인회계사 및 ▲한태식 서울경제인협회 상임 부회장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강남구청 결산검사장(본관 4층 회의실)에서 2023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해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의거 계산의 과오 여부 ▲실제의 세입·세출과 출금명령의 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

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결산검사의 견해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표위원을 맡은 노애자 의원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난해 강남구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형대 의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해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며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계획대로 적합하게 쓰였는지 철저히 검토해 재정 건전성 확보의 기틀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동희/기자



김남원 의원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발의, 노동현장에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구민의 인권 증진 기대해

국가기관도 직장으로 인정, 일반직장과 같이 고용주로서 예방과 해결에 책임감 있는 자세 요구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인천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동자나 공공기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감정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다룬 것으로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으로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수립,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을 비롯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와 사용자·고객·권리보호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시해 권리침해나 노동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주요안점을 둔 것으로, 이 같은 내용으로 작년 7월부터 조례 입안을 준비했으나, 조례제정의 법적 한계에 부딪혀 왔다.

김남원 의원은 "최근에는 '국가기관도 직장으로 일반직장과 같이 고용주의 책임이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법도 시대상을 반영하며 변하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함으로

나서게 됐다"라면서, "타 시도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것에 비해, 입안 목적과 이를 이어주는 조문의 내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며 항간에서 우려하는 찍어내기식 조례제정과 다른 다름다는 경계의 말과 함께 발의 이유를 말했다.

김남원 의원은 본 조례를 포함 의정활동 전반에 주민 권리 찾기와 인권 개선 등에 연속적이고 실질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제2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광고국:1899.9659 경 제 부:내선 (114) 오케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GTX A·C노선 연장 최대한 지원"

김동연 지사, 1일 GTX A·C노선 연장 관련 평택 지제역 현장 확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 평택 지제역을 방문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의 평택 지제역 연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평택 지제역에 GTX A하고 C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 진행중인데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빨리 추진이 돼서 경기 남부 교통 문제 해소와 발전을 위한 큰 인프라가 깔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평택이 경기도로서는 아주 중요한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많다.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GTX-A, C 연장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평택시가 잘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GTX A노선은 운정~삼성~수서~동탄까지 85.5km로 지난 3월 30일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했

며, 2028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GTX C노선은 덕정부터 삼성 등을 지나 수원까지 86.46km를 연결한다. 지난 1월 착공해 2028년 개통이 목표다.

만약 GTX A·C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된다면 지하철로 약 95분 소요되는 삼성~지제 구간을 GTX A노선으로는 33분, GTX C노선으로는 44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GTX A노선(운정~동탄)을 평택까지, GTX C노선(덕정~수원)을 동두천~평택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동두천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에 올려 퍼진 '봄의 선율'...월례조회 대신한 공감음악회

도의회, 직원 간 소통·공감 프로그램 '제1회 의회공감' 개최

경기도의회가 1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의장과 전 직원이 함께 어우러진 소통·공감 프로그램인 '제1회 의회공감'을 개최했다.

'의회공감'은 일방적 의사전달 방식의 월례조회를 대신해 수평·자율적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된 분기별 '의회 소통 프로그램'이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된 명칭에는 '의회 부서 및 직원 간 이해와 공감의 시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월례조회를 개편하며 가장 크게 고려했던 '이해'와 '공감'의 중요성이 새롭게 탈바꿈한 명칭에 오롯이 담겨 있어 뜻깊다"라며 "직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결정된 명칭인 만큼 애정 어린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첫 의회공감은 염종현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실력파 밴드 '코리안 아츠'를 초청해 '공감음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공감음악회는 경기아트센터의 '찾아가는 문화복지 공연 문화심터'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음악과 함께하는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주제로 꾸러졌다.

코리안아츠는 실험적이고 과감한 기획과 편성으로 클래식 공연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온 관악연주밴드며, 무대에 올라 빼어난 연주력을 뽐내며 감미로운 선율을 선사했다.

두 명의 트럼펫 연주자와 호른·트롬본·튜바·드럼 연주자 각 1명씩 총 6명

으로 구성된 밴드 멤버들은 40여 분 동안 봄철에 걸맞은 '영화음악 레퍼토리'를 색다른 느낌으로 편곡해 다채롭게 전달했다.

'해리포터', '라라랜드' 등 유명한 영화음악은 물론, '센과 치히로의 행방 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토이스토리'와 같이 대중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이 잇따라 연주되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은 개회의 계절인 봄을 형상화하여 꽃 모양으로 배치된 좌석에 앉아 편안하게 공연을 감상하며 연주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는 등 즐거움을 만끽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재충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두루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직원들이 의회공감의 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 의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직원 공모로 접수된 '월례조회' 명칭 개선안 16건에 대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공감이 143명의 득표(직원 참여자 252명의 23.3%)를 얻어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의회공감을 시작으로 월례조회를 대신해 직원 참여 및 소통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분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시흥 소래초등학교 수영장 건립을 위한 예산 138억원 확보

소래초등학교 체육관 개축과 연계하여 지하에 4레인 규모 수영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138억원(국비 30억원, 경기도교육청 108억원) 확보

공간재구조화(구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통해 중·개축을 추진 중인 소래초등학교에 수영장이 추가로 건립되어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존수영 및 생활수영 교육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일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수영장) 건립사업이 교육부의 '2024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38억원(국비 30억, 경기도교육청 108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래초등학교는 지난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된 후 급식실 증축과 체육관 개축 등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총 138억원을 투입하여 체육관 지하에 25m 규모의 4개 레인 등 1,500㎡ 규모의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하게 된다.

특히,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학교복합시설 '소래나들이'를 개관하고 공영주차장·작은 도서관·공연장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해 온 소래초등학교는 이번 수영장 건립 및 개방을 통해 학생 생존수

영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영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하는 '학교복합시설의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수영장 설치를 통해 소래초등학교가 지역 공동체의 문화·체육 거점이자 학교복합시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 도의원으로서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2026년 하반기에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설계·학생 통학로 안전·준공 등 공사 전 과정을 학교, 시흥교육지원청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소래초등학교 수영장은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9월 착공한 후 2년 뒤인 2026년 9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용인시 처인구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처인구

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성산초등학교·고진초등학교·고진중학교·영문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을 비롯해 처인구청 교통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성산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교내 육상부 대회 시 차량 지원 대책 마련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별 소요 예산 증액 고려 등을 제안했고 지난 3월 개교한 고진초등학교 학부모회장과 고진중학교 학부모 대 위원은 ▲학교 시설 안전 개선(난간 안전 펜스, 공사장 주변 울타리 설치 등) ▲도서관 증축 예산 증액 고려(바닥공사, 도서물품구입 등) ▲교내 모바일 통신 환경 개선 ▲합리적인 중

학교 학군 개편 ▲고진초·중학교, 고림고등학교 등 인근 통학로 금연 구역 지정 및 단속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처인구청 교통과 팀장은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학교 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학교 관계자, 교육청 예산지원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범상/기자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

도민이 행복한 희망 경북! 경상북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도민 행복

- 조례 제정**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규범을 만듭니다.
- 정책대안 제시**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듭니다.
- 예산안 심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살핍니다.
- 집행부 견제·감시**
합리적으로 집행하는지 정책을 체크합니다.

제14회 인천시 평생학습축제 6월8일부터 9일까지 개최



이천시는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설봉공원에서 제14회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보행자 위주 공원으로

부스 및 공연, 폴딩마켓(아나바다) 4월9일까지 신청

탈바꿈하는 설봉공원 가로정비사업 준공을 기념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인천시민 전 세대가 참여하는 축제에 기획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 체험, 전시, 판매, 공연, 읍면동 문화프로그램연대회 등이 운영된다.

이에 따른 축제 참여 부스와 학습동아리 공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아나바다 운동의 일환으로 폴딩마켓도 운영하며 4월 9(화)까지 접수를 받는다.

축제 부스 신청분야는 전시, 체험, 판매 3개 분야로 설봉공원에 부스가 배치되며, 부스운영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학습동아리 공연은 연주, 노래, 댄스 등 무대 공연이 가능한 분야는 신청 가능하며, 축제 기간 중 공연이 상시 운영된다.

또한 가족단위의 아나바다 운동으로 폴딩 카드에 물건을 담아 판매하는 폴딩 마켓도 운영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는 환경운동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부스 및 공연 신청서 양식은 인천시 홈페이지-상단 교육포털-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심사 결과는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심사 후 4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범상/기자

묵묵히 나아가는 독립음악 뮤지션들과의 만남 인천 뮤지션들과 성장하는 '로컬 스테이지' 신설

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 5th 무대

작은 무대, 큰 공감'을 모토로 하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살롱콘서트 '휴(休, HUE)'가 다섯 번째 시즌을 맞아 4월 19일부터 5월 4일까지 복합문화공간에서 7번의 무대를 개최한다.

살롱콘서트 '휴(休, HUE)'는 관객과 아티스트의 경계를 허물고 밀접하게 공감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살롱(Salon) 공연을 지향한다.

올해는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의 뮤지션에 집중된 대한민국 대중음악 시장 환경에서 묵묵하게 현시대를 묵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독립음악 뮤지션들과 함께한다.

프로그램 선정위원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무대

대중음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아티스트 추천과 라인업 구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연에서 직접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것은 이미 살롱콘서트 '휴'만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았다.

알찬 라인업 구성을 위해 공연기획자 이진우가 프로그래머로, 대중음악 평론가 김학선과 라이브 콘텐츠 기획자 조혜림, 라이브홀 벨로주 대표 박정용이 라인업 선정 및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깊이있는 음악을 추구하는 뮤지션들로 구성된 2024년 라인업! + 인천 뮤지션들과 성장하는 '로컬 스테이지(Local Stage)' 추가

2024 살롱콘서트 '휴(休, HUE)'는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화제로 떠오르는 6팀의 뮤지션들의 무대와 더불어 음악시장의 다변화와 지역 음악계의 활성화를 위해 '로컬 스테이지(Local Stage)'를 새롭게 시작한다.

하루의 무대로 소박하게 시작하지만 더 많은 지역의 뮤지션들이 관객과 만나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다.

4월 19일, 올해의 첫 무대는 패치워크 무니의 조합처럼 독특한 아이리시 포크음악을 들려주는 얼터너티브 포크 밴드 '패치워크'가 장식한다.

이어 20일에는 탁월한 기타 연주를 기반으로 섬세하고 따스한 가사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사공'이 담담히 자신의 음악을 들려준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펜타루키 대상 수상자이자 자신들만의 호쾌과 스타일을 밀도 있게 끌어올리며 영리하게 만들어 내는 밴드 '잭킹콩'이 4월 26일을 책임지며, 다음 날인 27일에는 제24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금상 수상자인 '이설아'가 사소하다 치부될 수 있는 관계와 감정을 섬세히 노래한다.

셋째 주에는 삶을 관통하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김종남/기자

"세계로, 미래로" 하남시, 공직자 글로벌 역량 UP '랭귀지 365 클래스' 운영 화제

원어민과 직접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소통하는 공직자 회화교육 인기

하남시가 글로벌 K-팝 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글로벌 공직자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내 외국어 회화반인 '랭귀지365클래스'를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공직자들이 사내에서 원어민과 직접 영어와 일본어로 소통하는 '랭귀지365클래스'를 올해 연말까지 3기에 걸쳐 시행한다.

하남시에서 첫 시행하는 랭귀지365클래스는 처음에 기수별로 3개월씩 30명의 인원으로 계획했으나, 신청을 원하는 직원들이 예상보다 많아짐에 따라 기수별 40명까지 늘려 연말까지 9개월간 운영하는 확대안으로 계획을 수정할 정도로 외국어 교육을 원하는 직원들의 참여 열의가 높았다.

특히 사전 레벨테스트로 측정한 개인별 어학능력에 따라 맞춤형 외국어 학습 방법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라는 행정환경에 필요한 회화능력을 키우며, 비교적 자유로운 점심시간 등 자유시간을 활용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MZ세대뿐 아니라 전 직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아울러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 등 시정 주요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선진행정 역량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장기국외훈련 및 해외파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글로벌 공직자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반기문 전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의 '글로벌 시대 공직자의 역할과 기후위기 등 세계적 이슈' 강의와 같은 국내·외 명사 강연 제공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운영 ▲전화와 온·오프라인 외국어 교육을 수강하는 직원에게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런 하남시의 글로벌 공직자 양성 프로젝트는 일본 교토의 어린이 안전보행공간 조성을 벤치마킹한 하남형 스킨십 사업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워킹 스쿨 버스 도입,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수변 공간을 활용한 시민 친화 공간을 벤치마킹한 호수공원 환경 개선 등 외국 우수정책을 하남시에 도입 하는 계기를 마련해 시민이 만족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태동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범상/기자



이현재 시장은 "글로벌 인재 양성 차원에서 사내 외국어 교육을 시행하도록 제안했는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에 놀랐다"며 "하남시는 글로벌 공직자 양성 프로젝트가 직원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하남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 안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

2024. 3. 26.(화) - 4. 10.(수)

1.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www.apc.go.kr) 접속 후 '안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 검색 또는 좌측 QR코드 접속

2.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참여 > 설문조사

안양시청 설문결과 상위 10개 과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후 5개 최종 선정

안양시, 시민이 직접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한다

4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시 홈페이지서 5개과제 투표

안양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올해의 안양시 중점과제를 시민투표로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란 시에서 추진하

는 사업 중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 편의를 제고하거나 불편사항 해소 등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다. 이번 투표는 내부 실무심사를 통과한 21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중점과제로 선정을 원하는 과제 5개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오는 10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의 생카모음란에서

'2024년 안양시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의 '설문조사' 게시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투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투표에서 상위 10개로 선정된 과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5개의 과제가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된다.

선정된 적극행정 중점과제는 제도 지원 및 분기별 성과점검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연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최태호 안양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2024. 4. 19. 인천문화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SALON CONCERT

5. 4. 휴(休, HUE) 5th 무대

4.19. FRI 18:30 패치워크	4.26. FRI 18:30 잭킹콩	5.3. FRI 18:30 김학선
4.20. SAT 18:30 사공	4.27. SAT 18:30 이설아	5.4. SAT 18:30 앵그리 여름

Local Stage 5.6. MON 18:30

5.6. MON 18:30 '오호프로젝트' x '더블스'

고양특례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전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으로 우수 외국인 유치



전라남도는 9월 20일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에 참여할 외국인 모집에 나서는 등 우수한 외국인 유치를 시동을 걸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F-2-R, F-4-R)를 발급

'지역우수인재'는 확대·'지역특화동포'는 인원 제한 없어

하고 특례를 제공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올해 모집 인원을 전년 시범사업보다 2배 이상 늘렸으며, 모집 유형은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 특화 동포로 나뉜다.

지역 우수 인재 유형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의 소득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갖춘 외국인인 5년 이상 모집 지역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추가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지역 특화 동포 유형은 모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서 모집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전남에선 영암, 해남, 고흥, 장흥, 곡성, 보성군이 사업에 참여한다.

지역 우수 인재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총 425명을 모집한다. 지역별 배정 인원은 영암 250명, 해남 60명, 고흥 35명, 장흥 30명, 곡성 20명, 보성 30명이다. 지역 특화 동포는 별도 인원 제한 없이 모집한다.

지역특화비자 전환을 바라는 외국인은 사업 지역 군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취업 허용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외국인에게는 가족 초청, 배우자 취업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지역 우수 인재(F-2-R) 비자 전환 시 장기 체류는 물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가족으로 초청할 수 있다. 또 지역 특화 동포(F-4-R) 비자의 경우 일반 재외동포(F-4) 비자보다 취업 범위가 확대되며, 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되는 등 다양한 특례가 있다. 특히 두 비자 모두 초청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지역 정착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가칭 전남도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자 일자리 매칭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윈윈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외국인 인재를 적극 유치하겠다"며 "지역특화비자 전환 외국인은 앞으로 도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므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강진군, 귀향 청년 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 제공

강진군, 귀향 청년 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 제공

강진군은 최근 마흔세번째 사랑의 집짓기를 완공해 취약계층 청년가구가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 보금자리 입주식을 지난 1일 가졌다.

이날 입주식에는 서순철 강진 부군수, 운영남 강진군군민회를 비롯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강진탐진로타리클럽 정원장 회장 및 회원들, 마을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해 입주를 축하했다.

입주자는 8년 전 귀향해 건축일을 하며 노모와 함께 살 집을 직접 기초공사를 하던 중 건강을 잃고 노모까지 사망해 희망을 잃고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 매칭그랜트지원사업 및 탐진로타리 후원금 등을 연계해 강진군 사랑의 집짓기를 진행했다.

강진군 2,000만원, 강진탐진로타리클럽 1,000만원, 동광전업 지정기탁금 500만원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500만원을 매칭해 총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강진읍에 23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했다.

새 보금자리에 입주한 청년가구는 "쾌적하고 아늑한 새 집을 지어 줘 감사하다"며 "냉·난방시설이 없는 컨테이너 생활로 몸도 안 좋았고 화재 위험에 늘 걱정이었는데 이전 걱정없이 살게 됐다"며 기쁨과 감사를 표했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43번째 사랑의 집이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강진탐진로타리클럽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43호 주택을 신축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다.

추윤호/기자

순천시,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엠블런스) 시범적용 지역 선정' 국비 10억원 확보

최적의 이송병원 선정, 응급환자의 치료 골든타임 확보

순천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엠블런스) 시범적용 지역 선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년간 AI엠블런스 시스템 구축·운영하는데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응급의료시스템(AI엠블런스)은 구급차와 의료기관에 AI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AI응급서비스를 포화도 분석 등에 따라 최적의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환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응급실 도착 전 최적의 치료계획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지역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전남 소방본부 및 전라남도과 협조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의



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여 전라남도, 전남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6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전남순천'응급의료 진료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1년 차인 2024년에는 '전남순천'응급의료 진료권에 4대 중증환자 이송률이 높은 순천·여수·광양소방서 119안전센터에 총 20대(순천 8대, 여수 8대, 광양 4대)의 AI엠블런스 시스템

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톨릭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순천한국병원, 순천의료원, 순천제일병원, 여수전남병원, 광양서울병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후 사업 수행기관인 AI엠블런스사업단과 운영 성과 공유를 통해 시범지역 확대·보급 및 고도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I엠블런스 시범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 응급의료기관과의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 의료기반 마련에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된 만큼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KTX 타고 함평나비대축제 보러오세요!

전남 함평군은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기간 동안 KTX가 함평역에서 하루 3회 임시 정차한다고 1일 밝혔다.

축제 기간 동안 KTX는 하루 기준 하행선 3회(06시 28분, 07시 46분, 08시 19분), 상행선 3회(16시 08분, 17시 12분, 18시 15분) 용산과 함평 구간을 운행한다.

이번 KTX 함평역 정차는 함평나비대축제를 방문하는 수도권 및 충청권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코레일의 배려로 이뤄졌다.

함평군 관계자는 "KTX 이용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함평역~축제장 셔틀버스 운행 및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레일 광주여행센터에서는 용산역에서 출발하여 광주송정역에

도착 후 나비축제장과 함평 관광지를 방문하는 "2024 함평나비대축제 보러가자"(1박2일) 상품을 4월부터 판매 예정이다.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동안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체험 및 전시, 문화예술행사와 나비와 함께하는 환상 여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개최된다.

김영진/기자



나주시 '보증금 없는 청년 임대주택' 나주시, 올해 70호 확대 공급



전라남도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내면 되는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은 타지에서 나주시로 전입해 일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발굴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삼영동, 송월동 임대(부영) 아파트 30호를 최초 공급했으며 올해 70호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입주한 청년들은 전·월세 비

18~45세 타지서 전입하는 근로 청년 대상

용 부담 없이 매달 아파트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1회 연장)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타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나주시에 위치한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입 세대원이 2명 이상인 청년', '산업단지 근로 청년' 등은 우선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제목)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사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월말 입주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도 보다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주거뿐만 아니라 취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산업 교육,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청년들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매력 나주를 구현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만/기자

남원시, 전북특별법 특례 활용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 노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매달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발굴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2024. 12. 27. 전북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례 실행력 강화를 본격 추진하는 만큼 남원시도 도정방향에 맞춰 법에 반영된 개별 특례 중 5대 분야 36개 사업의 실행력 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곤충산업, 바이오산업, 스마트팜, 합파우아트벨리 등 시 역점사업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5대 지구 지정 특례 대응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전

략이다.

지구 지정 특례 외에도 △야간관광산업 육성,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귀농·귀촌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등 지역산 농산물 공급,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조성 등 31개 사업의 다각적인 사업화로 소득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특례 발굴로 특례산업을 선점하여 우리 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틀 마련에 적극 대응하는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구상 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의 발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특례 중심으로 통합형 아젠다



특례를 발굴하고 특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시의 특례 대응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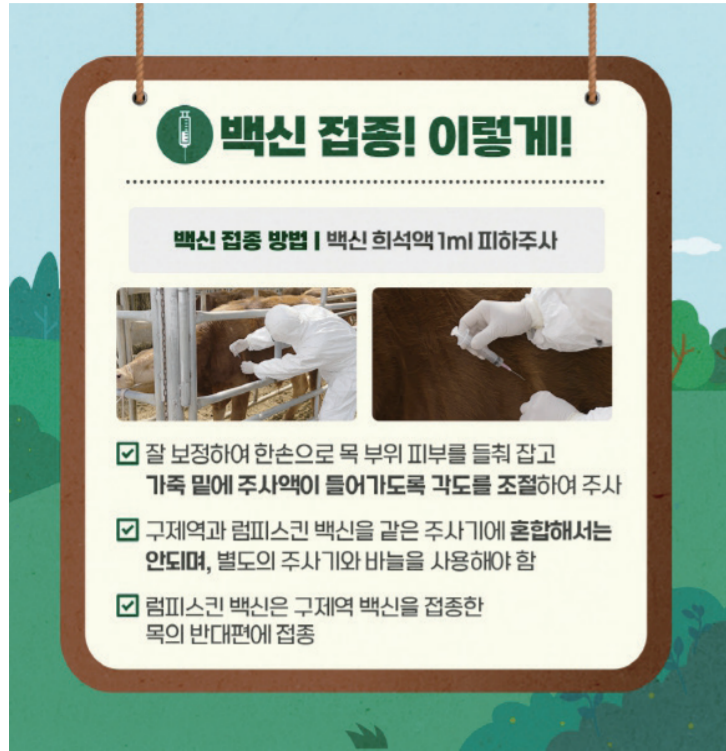
심한 대응을 바란다"며 "남원시가 전북특별법 시행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나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이남출/기자



경북도, 소사육농가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 시작!

작년발생 2개 시군 조기접종(4월), 그 외 지역 순차접종(5~10월)



경상북도는 소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첫 발생 후 전국적으로 총 107건, 경북도는 2건(김천, 예천)이 발생했다. '23년에는 신속한 백신접종과 방역으로 초기에 안정됐으나, 소의 면역력 유지를 위해 1년 이내 추가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럼피스킨이 발생한 김천, 예천은 위험도평가 결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2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소 10만 마리에 대하여...

윤근수/기자

축제의 도시 서초, 마을 구석구석까지 깃드는 클래식 판타지야!

전성수 구청장 "앞으로도 서초의 일상이 축제가 되고, 어디에서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문화 전성시대 만들어 갈 것"



4월 서초에는 동네 구석구석에서 클래식의 향연이 펼쳐지는, 문화예술이 가득한 환상적인 봄이 찾아온다. 서초구는 오는 20일, 21일 밤에...

구성되어, 음악과 함께 놀이기구, 먹거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특히 20일은 낭만적인 봄밤의 음악 선율, 21일은 온 가족을 위한 참여 이벤트를 위한 개막 첫날인 20일 오후 7시에...

작은 공연들이 펼쳐져 4월 내내 클래식의 향기를 더할 예정이다. 강남역 9번 출구 '서초여행지원센터' 앞에서는 5~6일 오후 5시 반부터 버블쇼와 클래식 아코디언, 클래식 락 하이브리드 연주 등이 열린다. 12일 오후 3시 반, 13일 오후 12시 반부터는 고투물 G2 출구 '원베일리 공공보행도로'에서...

이흥수/기자

봄꽃 향기는 계속...영등포구, 벚꽃길 통제 8일까지 연장

단, 여의서로 하부도로(서강대교 남단 주차장~여의하류 IC) 구간, 당초대로 4.3. 낮 12시 교통통제 해제



영등포구가 적은 일조량으로 인한 더딘 벚꽃 개화로 당초 4월 4일 저녁 10시까지만 '여의도 벚꽃축제' 교통통제를 4월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29일, 여의서로 일대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일대에서 '여의도 벚꽃축제'를 개설했다. 그러나...

그러나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말 많은 상춘객들이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을 것에 대비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4일 저녁 10시까지였던 교통통제는 4월 8일 오후 2시로 변경된다. 단, 여의서로 하부도로(서강대교 남단 주차장~여의하류 IC)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4월 3일 낮 12시에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충분히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길에 있는 ▲피크닉쉼터 ▲팝업가든 ▲포토존 ▲화장실 ▲유아차, 유아웨건 대여 ▲아기쉼터 ▲관광정보센터 ▲의료상황실 등 편의 시설과 휴식공간의 운영도 연장된다.

박황신/기자

성동구, 수제화가족공예 교육생 모집... 교육부터 창업 지원까지

4월12일까지 수제화반 10명, 가죽공예반 20명 총 30명 모집

서울 성동구가 전통산업 기능 전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 12일까지 수제화 및 가죽공예 교육생을 모집한다. 구는 국내 제화산업 최대 집적지인 성수동 수제화의 기술이 고령화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막고 젊은 장인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제화 및 가죽공예 공방 교육시설(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1층,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2층)을 조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에는 2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식과 졸업작품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수료생들의 졸업작품을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1층 수제화 전시갤러리에서 전시 및 판매를 연계함으로써 교육생들이 교육 후 자신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가죽공예 기능반 교육을 수료한 김희경 씨는 "작년에 성동구 가죽공예 교육을 받고, 올해는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수제화 공동판매장(창업공방)에 예비창업자로 입점까지 하게 됐다"라며 "이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 제작 기술을 배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됐고, 이를 통해 창업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다. 가죽공예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성장하고 싶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올해는 오는 4월 12일까지 수제화 및 가죽공예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관련 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수제화반 10명, 가죽공예반 20명으로 총 30명이며, 교육은 수제화 제작 과정(패턴, 갑피, 저부 등)과 핸드백, 지갑 등 가죽공예 완제품 제작 과정(디자인, 제본 등)으로 각각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실습 교육 외에 지난해 시범 교육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낸 바 있는 디자인 출원 교육과정을 재개설하여 운영하며, 교육생들의 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 컨설팅 과정을 새로 추가하여 진행한다. 구는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제작 기술을 배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본인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을 꿈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원/기자

송파구, '스카이캐슬' 실존 입시코디 진동섭 강사와 함께 2025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송파구가 오는 4월 18일 10시에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드라마 'SKY캐슬'의 실존 입시코디로 유명한 진동섭 강사와 함께하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고민과 불안감을 덜고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입시 전문 강사들을 초청하여, 총 5차에 걸쳐 2025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1차 설명회는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 출신의 최고 입시 전문가인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를 강사로 초청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맞는 학습전략과 합격 비결을 전할 예정이다. 진동섭 강사는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드라마 'SKY캐슬'속 입시컨설턴트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하다. ▲전년도 입시사례

분석 ▲2025학년도 입시제도 및 변경 내용 ▲학년별 준비사항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이어 6월 2차 설명회는 '고교입시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7월 3차 설명회에서는 '수시 대비 점검'을 주제로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세우도록 안내하고, 9월 4차 설명회는 모의고사평가 분석을 통해 수시지원 전략을 제공하고, 12월 5차 설명회에서는 수능결과 분석과 정시 지원을 위한 핵심전략 및 최종사항을 전한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송파구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는 4월 5일 9시부터 송파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순 300명 모집이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송파관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흥수/기자



강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명 선거지원 철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선거사무 추진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고, 상황실은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과 불법 선거운동 단속 협조,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수행한다.

특히, 도와 18개 시군은 선거 인력지원에도 적극 참여했다. 금번 선거에서는 수개표 절차를 도입하여 보다 많은 인력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3월까지 도와 18개 시군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투·개표사무원 인력 5,300여 명보다 많은 5,5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전길택 행정국장은 “이번 선거는 수개표가 30년 만에 부활하는 선거”라면서, “강원지역 선거에는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주민등록 자료정비, 선거인 명부 작성, 불법 선거운동 단속 지원 등 도내 공무원 5,500여 명이 개별업무에 추가적으로 선거사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선거업무를 지원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이들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강호철/기자

18개 시군과 함께
법정선거사무
차질 없이 추진,
선거사무 인력 적극 지원



아산시, 코레일과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 관광 활성화 기대

열차 타고 아산으로 놀러 오세요

아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인 '자연으로 힐링하는 아산 감성 투어 열차'를 운영한다.

이번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은 열차를 이용해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아산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여행용 차량비용 지원, 아산페이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자연으로 힐링하는 아산 감성 투어 열차' 상품은 △현충사 △그린타워 전망대 △신정호 수변공원 △북한문화 공간 모나밸리 탐방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화폐를 이용해 온양온천전통시장에서 자유 종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체 여행객뿐만 아니라 내일로(개별 자유여행 철도패스상품)를 이용하는 개인 여행자도 SNS에 여행 후기를 등록하면 내일로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4월에 개최되는 '제63회 성음이순신 축제' 기간에는 코레일 마케팅 담당자, 여행기자, 블로거기자단 30여 명이 개막식 및 현장 곳곳을 누비며 생생한 축제 현장을 SNS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아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인 '자연으로 힐링하는 아산 감성 투어 열차'를 운영한다.

이번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은 열차를 이용해 아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아산시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 여행용 차량비용 지원, 아산페이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자연으로 힐링하는 아산 감성 투어 열차' 상품은 △현충사 △그린타워 전망대 △신정호 수변공원 △북한문화 공간 모나밸리 탐방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화폐를 이용해 온양온천전통시장에서 자유 종식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단체 여행객뿐만 아니라 내일로(개별 자유여행 철도패스상품)를 이용하는 개인 여행자도 SNS에 여행 후기를 등록하면 내일로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코레일 열차 연계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산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4월에 개최되는 '제63회 성음이순신 축제' 기간에는 코레일 마케팅 담당자, 여행기자, 블로거기자단 30여 명이 개막식 및 현장 곳곳을 누비며 생생한 축제 현장을 SNS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잿더미로 변한 땅에 새 희망 심는다

2일 식목일 기념 희망의 나무 심기...대형 산불 이후 첫 산림 복구 추진



충남도가 지난해 4월 발생한 큰불로 민동산으로 변한 홍성군 서부면 일원에서 다시 푸른 산을 만들기 위한 첫 나무 심기에 나섰다.

도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일 홍성군과 함께 홍성 서부면 양곡리 산불피해지 일원에서 대형 산불 이후 첫 산림 복구 사업으로 '식목일 기념 희망의 나무 심기'를 추진했다.

양곡리 일원은 지난해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해 1337ha 규모의 산림 피해를 입은 곳으로, 도와 군은 산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사라진 숲에 희망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도내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 총 1799.4

ha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 면적은 홍성지역이 1337ha로 가장 컸고 금산 242.9ha, 당진 98.5ha, 보령 97ha, 부여 24ha 순으로 집계됐다.

산림작물은 물론 농작물, 가축, 꿀벌 피해 등이 있었고 농업·축산·임업 시설 및 농막, 농기계 등 사유 시설 등도 피해가 컸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파·반파 등 주택 63세대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113명이 발생했다.

도는 주택 및 농·축·임업 피해를 복구하고자 지난해 성금 모금을 추진해 62억 원의 국민 성금을 모금하고 1:2:3차에 걸쳐 피해 규모별로 성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도는 산림 피해지 복구를 위해 서 피해지역 5개 시군에 74억 원을 투입해 산림 497ha를 복구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319ha, 2026년에는 484ha를 복구한다.

산지가 안정화되고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편백나무·백합나무·낙엽송·소나무·상수리나무·아까시나무·헛개나무 등 산림의 기능에 맞는 적합한 수종과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태흠 지사와 홍성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장, 관계 공무원, 산림단체, 주민 등 350여 명은 3ha 산림에 편백나무 4500그루를 심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선 나무를 심고

가꾸는 나무 사랑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나무, 밤나무 등 6종 총 680그루를 나눠주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산불 조심” 현수막이 무색하게도 1년 전 유래가 없던 역대급 산불로 1300ha의 숲을 잃었다. 1년 뒤 오늘 우리는 희망을 심기 위해 다시 모였고 여러분과 심는 4500개의 묘목이 이곳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오늘 3ha를 시작으로 3년 안에 피해지 전역에 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식목일 행사에 그치지 않고 3년간 170억 원을 투입해 서부면 산림을 되살려낼 것”이라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불 감시체계 구축, 산불 소화시설 및 사방댐 조성 등 철저한 예방·대응으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임기 내 경제림 1만 3000ha를 조성해 산림의 경제성을 높이고 산림 소득을 향상하는 등 활용도 높은 수종으로 충남의 숲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고 산소도 제공하는 소중한 자산인 숲을 만들어 가는 일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태백시,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

태백시는 4월 1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태백시시설관리공단과 태백고원자연휴양림 및 9개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은 이상호 태백시장과 남궁 중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시설물 위·수탁 계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19일 태백시시설관리공단 출범 후 태백시와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계·인수를 위해 사전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및 실사를 진행했으며, 공단 출범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공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최상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복리 증진과 책임경영으로 고객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민 중심의 공단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남궁 중 공단 이사장은 “시민중심, 안전중심, 성장중심”의 공단 핵심가치를 토대로 임직원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탁받은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공기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영주시

감개무량 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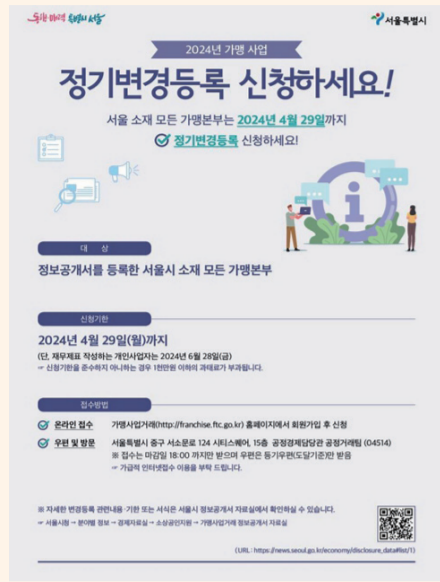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을 향해 마련된 듯 싶어진다

출처: 최순우 저자의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중

영주 부석사

"서울시 등록 가맹본부는 4월 29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신청 완료하세요"

기간 내 정보공개서 미등록 증가 추세...미·지연등록으로 가맹 취소, 3년간 292건



본부의 약 33%를 차지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30여 개 항목에 대해 변경된 정보를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사·도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2024년 기준 6월 28일) 변경 등록을 하면 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기 변경 신청 서식 및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상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상 14일 내 보완요청을 하는데 보완 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거부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기한 내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 변경을 하면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보공개서 미등록·지연등록 등으로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총 292건으로,

이 경우 해당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계약 등 가맹사업을 더는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최근 3년간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아 가맹본부에 부과된 과태료는 4억 6,5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 21일에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설명회를 통해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편의를 위해 오는 9월에 추가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운 프랜차이즈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정기 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여 등록 신청하길 바라며, 서울시는 이를 지속해서 관리·감독해 공정한 프랜차이즈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초구, 불법 무단점유시설 행정대집행으로 준법 질서 확립

지난달 29일~31일 동안 불법 무단점유 시설 '재활용센터·고물상'에 대해 행정대집행 실시

20여년간 불법 무단 점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공간이 주민편의공간으로 조성돼 마침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 서초구는 시유재산(체비지*)인 서초동 1323-9번지 일대를 무단으로 점유해 불법영업 중인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의 폐가전·가설 적치물 등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체비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효한 땅.

해당 토지는 1992년 영동1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체비지가 최초로 조성됐다. 고물상은 2000년부터 불법 무단 점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활용센터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 불법 무단점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 무단점유시설로 인한 쓰레기, 악취, 안전사고 위험 등 장기간 불편을 호소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단호하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쾌척한 도시미관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간 서초구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장기간 무단 점유한 재활용센터와 고물상에 수차례의 면담과 공문서 송달을 통해 원상복구 및 이전 명령을 실시했다.

또, 해당 시설들은 서울시와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징수했다. 체납된 변상금은 약 88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독촉고지,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 등 조치를 취했다.

2017년 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2023년 쌓여있는 방치 쓰레기에



서 나오는 악취와 미관문제 해결 등을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정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무단점유자가 자진 철거 이행 의사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달 22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최종 통지했다. 이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구청 직원, 보건소, 서초소방서 등 총 80여명이 참여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서초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서초구는 3일 간 폐기물 140톤, 폐가구 200여개, 폐고철 5톤 등 불법적치물을 철거했으며, 수거된 물품은 서초구 원자동에 임시보관했다. 1개월 동안 재활용센터 및 고물상 측의 반항 요

구가 없을 경우,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약 3천 5백만원에 대해서는 비용 청구도 진행한다.

서초구는 이달부터 약 1달간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로써 무단점유했던 체비지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오는 5월 중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선보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비지 등을 관리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세종시, 행정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도시로 우뚝 선다

구비서류 제로화 실증...연간 6.3만 명 원스톱 민원처리 혜택

세종특별자치시는 디지털 기술이 행정에 접목되고 융합되는 속도가 도시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기에 앞서 정책을 미리 점검하는 테스트베드 공간으로,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실증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첫걸음으로 시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구비서류 제로화 및 디지털 민원혁신 가속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열고, 디지털 민원혁신 선도도시로 도약을 천명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자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시대적 과제라고 판단하고 올해 디지털 혁신 과제를 역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구비서류 제로화로 민원 불편 해소=시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와 구비서류 제로화 협력을 선언하고 '구비서류 제로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이는 공무원이 직접 증명서를 확인해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제출하는 증명서를 없애는 제도다.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일정(4월 100개, 12월 321개)에 맞춰 조례 개정, 민원처리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 수혜사업에 대상으로 실명인증 및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등의만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주민 수혜사업은 아빠장려금, 농업인수당, 입학축하금 등 조례에 따른 수혜서비스 일체로, 서비스가 구축되면 연 6만 3,000명의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 행정역량 강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의 행정역량 강화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연설문, 보도자료 작성 등에 인공지능(AI) 활용을 일상화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홍보, 사업계획 수립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초거대 AI 활용 교육을 시작한다.

아울러, 민원 상담원 수준의 답변이 가능한 챗봇서비스인 가칭 'AI충녕'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 누리집, 민원콜센터의 민원 데이터를 인공지능 플랫폼에 학습하는 단계로, AI충녕 서비스가 정식으로 도입되면 단순 민원 30% 정도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플랫폼 기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강화=또한, 시는 '세종시티엠', '세종엔', '똑똑건강' 플랫폼에 공공마이데이터를 적용하여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도 박차를 가한다.

우선 세종시티엠은 지난달 15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56종의 전자증명서를 공공기관,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시민증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세미나 등 행사 시 출입을 인증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시민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똑똑건강 앱을 통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시민이 본인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내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오늘건강앱 및 노인 맞춤형 복지정책 거점 시설인

스마트경로당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엔업은 초정밀 버스 도착정보, 긴급SOS, 시설물 예약, 여권 대기정보 등 지도 기반의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세종엔업에서는 AI영상기술을 활용해 놀이터, 이용다리에서 시민체감형 실시간 혼잡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이들에 걸쳐 진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에는 시민의 주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세종엔업을 활용한 실시간 투표 대기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하는 혁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비서류 제로화와 AI충녕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민 밀착형 행정혁신을 통해 도시 혁신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놀이 중심 공간 조성' 40억 원 투입

놀면서 배우고 꿈꾸며 자란다! 경북 아이들 행복 가득, 웃음꽃 활짝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놀이 중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도내 초등학교 38교에 총예산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교실을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한 아동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복도, 휴베이스, 운동장 등 학교 내 여유 공간을 놀이와 휴식, 배움이 균형 잡힌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학생의 놀 권리 및 실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놀이 문화를 확산해 학생 간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달 도내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38교의 교실 33실과 운동장, 복도 등 여유 공간 51개 공간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교는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로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배움, 놀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여 미래 교육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초등학교 놀이 중심 재구조화는 2019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까지 교실 364실과 532개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했으며, 공급자 중심의 기존 학교시설을 수요자들의 '배움, 놀이, 휴식'

이 하나 된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교육 주체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높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사용자가 '놀이 중심 공간 재구조화 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역시 높다. 또한, 교실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놀いと 휴식은 학생의 행복감과 직결된다"라며 "학교가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습공간이자 마음껏 놀고 충분히 휴식하는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 하나 된 균형 잡힌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켜 교육 주체들로부터 호응이 매우 높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사용자가 '놀이 중심 공간 재구조화 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역시 높다. 또한, 교실이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변해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놀いと 휴식은 학생의 행복감과 직결된다"라며 "학교가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습공간이자 마음껏 놀고 충분히 휴식하는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며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유치원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 20개 유치원 선정

유치원 놀이와 쉼 중심의 놀이 친화적 환경조성 노력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 공모 결과 20개 유치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은 놀이와 쉼 중심의 놀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구조화된 환경에서 탈피해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놀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실내 놀이터를 자연 친화적 놀이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놀이 용달샘'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실내 공간의 놀이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실내 환경개선 8개 유치원과 실외 환경개선 12개 유치원은 놀이 공간 활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 공간과 실외 놀이터를 놀이 촉진이 일어나는 비구조화·비정형화된 놀이환경으로의 조성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놀이와 쉼이 일상화되고 풍부한 감성을 키우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 공모 결과 20개 유치원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은 놀이와 쉼 중심의 놀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구조화된 환경에서 탈피해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놀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9년 유치원 실내 놀이터를 자연 친화적 놀이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놀이 용달샘'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실내 공간의 놀이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된 실내 환경개선 8개 유치원과 실외 환경개선 12개 유치원은 놀이 공간 활용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 공간과 실외 놀이터를 놀이 촉진이 일어나는 비구조화·비정형화된 놀이환경으로의 조성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 놀이 촉진 환경개선 사업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놀이와 쉼이 일상화되고 풍부한 감성을 키우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교육청경북교육청, 다(多)지원학교 운영으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29일 해군본부와 협약형 특성화고 설립 업무 협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오전 충청남도 계룡시 해군본부(참모총장 양용모)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의 필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특성화고, 기관, 대학 등이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0개교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35교를 선정하는 교육부 지원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학교는 5년간 35부터 45억 원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 강동길 해군참모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산교육청과 해군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칭)부산해군과학기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교사 확보 지원 등에, 해군본부는 해군 부사관 학생 선발 과정, 특별전형 통한 임관 후 장기 복무 시 학업 기회 제공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부산시, 국립한국해양대 등도 학교설립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25년 해운대공고를 전환해 문을 열 '(가칭)부산해군과학기술고'는 해군 거점지역인 부산을 중심으로 국가

필수인력인 '해군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나선다. (가칭)추진체계와 3학년, (가칭)전투체계와 3학년으로 학년별 6학급을 운영하고, 학반당 16명 총 96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생 전원은 해군본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된다. 특히, 장기 복무 시 능력 개발교육의 일환으로 전문학사·학사 등 학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해운대공고의 본관동, 교실 등, 기숙사를 개축해 실습실·실습 기자재 등을 갖춰 해군 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군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교육사령부의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실습, 부대 체험, 산학겸임교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부산항공고 개교, (가칭)부산항만물류고 설립 추진, 국립한국해양대와 협약 등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역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필수인력인 '해군 부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나선다. (가칭)추진체계와 3학년, (가칭)전투체계와 3학년으로 학년별 6학급을 운영하고, 학반당 16명 총 96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입학생 전원은 해군본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하면 졸업과 동시에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된다. 특히, 장기 복무 시 능력 개발교육의 일환으로 전문학사·학사 등 학업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기존 해운대공고의 본관동, 교실 등, 기숙사를 개축해 실습실·실습 기자재 등을 갖춰 해군 부사관 인력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군본부는 해군작전사령부, 해군 교육사령부의 자원 등을 활용한 연계 실습, 부대 체험, 산학겸임교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비롯해 부산항공고 개교, (가칭)부산항만물류고 설립 추진, 국립한국해양대와 협약 등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역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직업계고 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대구동부교육지원청, 학교 자율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실시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29일에 동부 관내 초·중·고교 82명을 대상으로 '학교 자율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고교관리자(교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커지고,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례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학교관리자의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생활지도 고시'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및 관련 법령,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절차,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학교관리자의 역할 등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4년에 달라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등, 학교관리자가 알아야 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점형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가 학교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정책 등, 학교관리자가 알아야 할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점형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가 학교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장애 영유아 진단비 지원

지난해 8명→올해 50여 명, 3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올해 장애 영유아 50여 명에게 진단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복지 카드 미소지 영유아(만 0세~만 5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 권고'를 받은 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받거나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가 해당한다. 교육지원청은 장애 진단비로 지난해와 같은 1인당 1회 30만 원 이내 실비를 지원한다. 보건소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은 영유아도 진단검사 실비 30만 원 이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장애 조기 발견·진단으로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장애 의심 영유아에게 장애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장애 영유아 8명에게 진단비로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0여 명 지원을 목표로 지자체와 유아교육·보육 기관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장애 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영유아 보호자는 내년 2월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해 영유아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2차 장애 예방과 발달 촉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영양교육지원청, 마음을 나누고 성장을 도울 첫걸음!

2024학년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영양지역연합회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일 오전 영양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경상북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영양지역연합회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환영회는 기존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영양지역연합회 회원과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환영회 후에는 경일대학교 상담교수 송위덕 교수를 초청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육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신입 회원들이 첫걸음을 딛는 순간인 만큼 회원들을 격려하며 우리 생활에서 상담이 가지는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북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영양지역연합회는 학부보 및 학생 상담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 관내 초, 중,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자기발견, 자기성장, 할 대인관계, 학교 폭력 예방 등 다양한 주

제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영양의 지역적 특성과 연령별 학생 특성을 고려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개선 있는 상담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주 자체 회의 및 연수를 통해 상담 역량 강화에 힘쓰며 전문성 함양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신입생 환영회에서 영양지역연합회 문현희 회장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자 시작한 봉사활동이긴 하지만 점점 커지는 사랑으로 활동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며 "새로운 회원들도 지금의 열정을 잊지 말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 "마음의 여유를 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영양지역연합회 선생님들께 감사사를 전한다"라며 "갈수록 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요즘, 스스로를 돌아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봉사자분들도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장문화/기자



www.dudc.or.kr

금호워터폴리스

NATURE HUMAN CITY

상업, 근생, 지원, 단독주택, 주거정용지 수의계약 공금 예정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일반상업, 준주거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금 중

대구도시개발공사 분양문의 053) 350-030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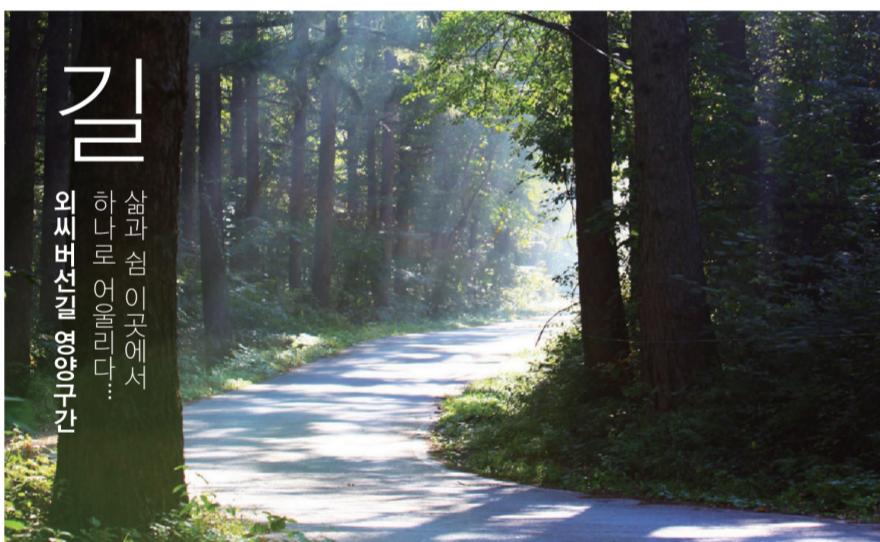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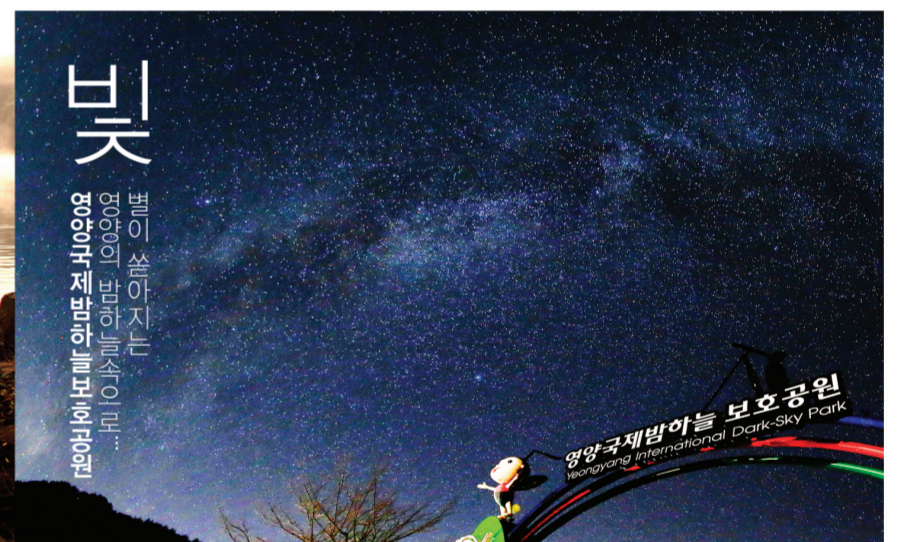
길

살과 숨이 곳곳에서
아름답게 숨어있고...
의외롭게 영원이니



물

영양의 밤에는
이제야 영원이니...
영원한 영원이니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을
영원이니 영원이니 영원이니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식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서식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